

秘境 閑麗海上國立公園

清淨水質은 국제적, 動植物·天然記念物 많아
強力한 中央政府의 運營管理策을 希求

● 慶南 巨濟郡 一運面 只心島에서 全南麗水市 梧桐島에 앞바다 까지 크고 작은 섬들을 굽이 돌아 뱃길 3百里. 이름하여 閑麗海上國立公園이라 부른다. 韓國의 白眞珠요 天惠의 觀光寶庫로 알려진 이 海上國立公園은 1968年 12月31일 建設部公告164號로 智異山, 慶州, 鷄龍山에 이어 4번째, 3個 海上國立公園 가운데선 가장 먼저 指定된 곳.

● 慶南巨濟郡三千浦市, 河東, 南海郡과 全南麗水市일원의 陸地 128.7km²와 海上 349.92km²인데 6個地區로 指定되고있다. 巨濟의 海金剛을 主軸으로한 海金剛地區, 李忠武公의 戰跡地가 있는 閑山島地區. 鶴섬으로 이름난 三千浦地區. 南海大橋와 李落祠가 있는 露梁地區. 南海금산과 尚州海水浴場을 안고 있는 錦山地區. 그리고 麗水의 梧桐島地區.

● 錦山(681m)은 李太祖(李成桂)가 高麗末 百日祈禱 끝에 王位에 올라 그 靈驗의 恩惠로 山을 비단으로 덮어 錦山이라 命名했다하는데 新羅때는 元曉大師가 이 山에 普光寺를 지었기때문에 普光山으로 불려왔었다한다. 高山은 아니지만 頂上까지 奇岩怪石으로 가득하고 이 작은 山속에 오밀조밀 들어찬 景致 좋은 곳이 38군데나돼 옛부터 詩人墨客의 발이 끊이지않고 錦山38景을 노래로 讚美했다한다.

● 巨濟의 海金剛은 奇岩怪石의 海岸線과 海壁이 絶景을 이루고 갈곶섬의 桐栢숲은 大自然의 造化에 탄복할 뿐.

閑山島는 民族魂을 일깨워주는곳으로 制勝堂에는 聖雄 忠武公 李舜臣將軍의 遺品과 影禎이 奉安되어 있다. 南海大橋의 露梁地區는 忠武公을 잃은 곳으로 李落祠가 있고 梧桐島엔 常綠活葉樹인 桐栢나무가 많고 海岸의 急傾斜地에

는 아직도 原始林이 잘 保存되고 있어 學術的價値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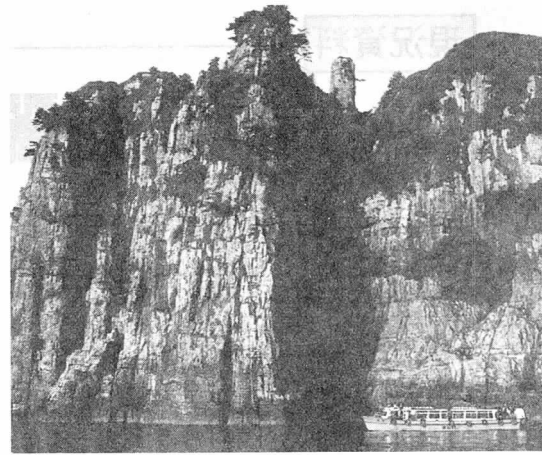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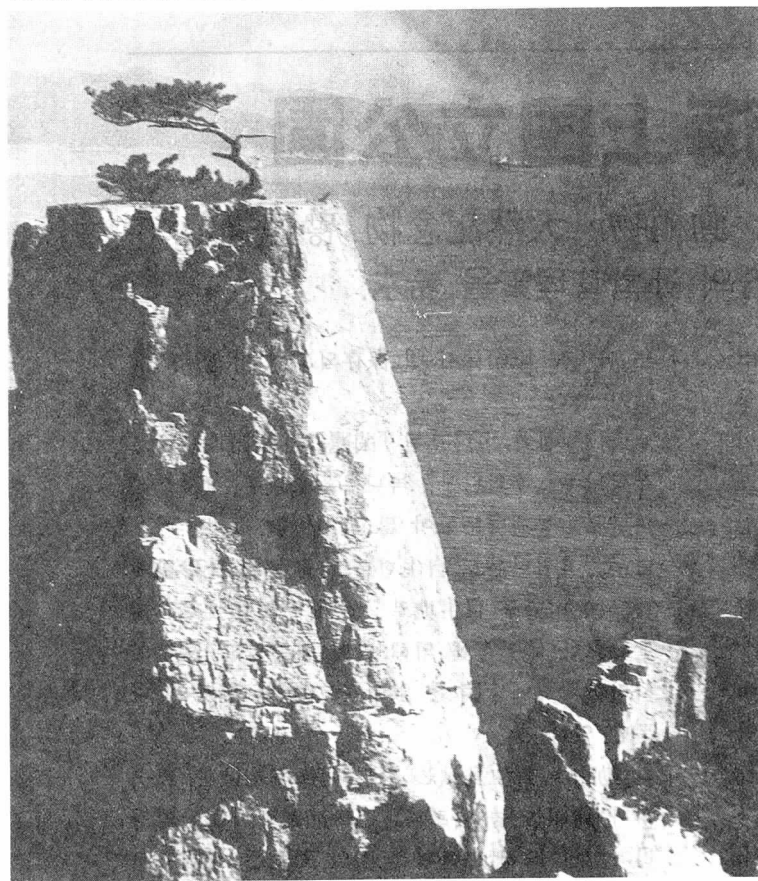
● 많은 섬과 바다로된 「閑麗」는 暖帶性植物로 감탕나무, 후박나무, 녹나무, 광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등이 많고 山竹類, 海松, 비자나무, 자귀나무도 自生한다. 統營郡 比珍島에는 팔손이나무 自生地로 天然記念物63號로 指定됐으나 觀光客에 의해 많이 훼손되고 59年の 사라號颱風때 巨木은 없어지고 10년 안팎의 나무만 있다.

● 動物中 野生鳥獸는 다른 南海岸地域과 비슷하나 鳥類는 좀 다르다. 三千浦鶴섬에는 왜가리가 철따라 渡來하며 巨濟의 鶴洞은 팔색조渡來地로 有名.

● 3百里 閑麗水道 清淨海域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水質이며 魚族은 우리나라 어느 海岸보다 豊富하고 種類도 多樣. 도미, 광어, 대구등 比較的 큰 魚種을 비롯하여 전복, 굴, 소라, 바지락 등 貝類, 미역, 다시마등 海藻類도 많다. 그래서 天然水族館 또는 바다 牧場이라 불리기도 한다.

● 閑麗는 국립공원이 지정된후 10年동안 開發을 못하다가 79年 5月 1日 閑麗海上國立公園慶南道管理事務所가 充足된후 体系的인 開發計劃에 들어갔다. 2道 2市 4郡 2洞 8面을 안고있는 公園地區内에는 大小39個의 有人島와 57個의 無人島를 갖고있다. 非鋪裝道路와 陸·海上〈定期유람선 등〉交通未備, 管理손不足, 宿泊, 便宜施設등 모두가 다른 國立公園에 비해 初步 단계라 하겠으며 하루 속히 現在의 非效率의 管理体制를 벗어나 中央政府가 運營관리하는 강력한 管理方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慶南新聞閑麗水道特輯에서]



〈만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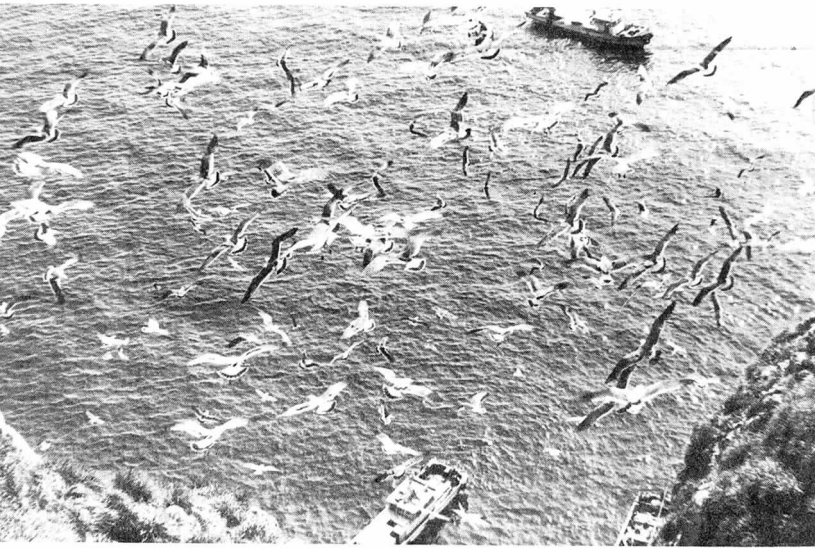
▲만연봉은 男性의 상징이라 하여 옛부터 子孫이 귀한 사람들이 소원을 빌던 곳이며 奇岩絶壁에는 風蘭, 石蘭 등이 꽃을 피우며 冬栢의 群落에는 八色鳥가 나른다.

海金剛의 千年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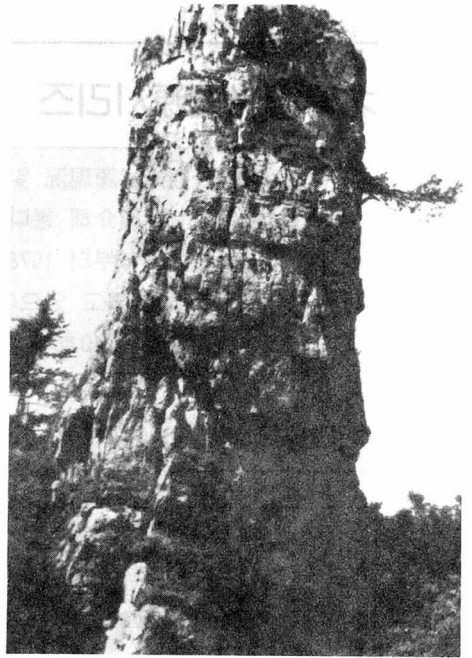
◀온갖 萬古風霜을 겪으며 끈질긴 生命力으로 한려의 美景을 더해주고 있는 “사자바위” 위의 千年松.



▲李舜臣 將軍이 三道水軍의 本營으로 制海權을 장악했던 閑山灣과 忠武公의 魂이서린 곳인 制勝堂(史蹟113호)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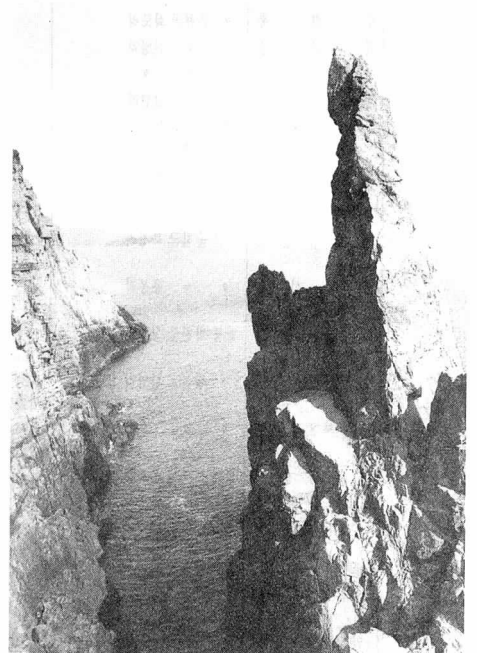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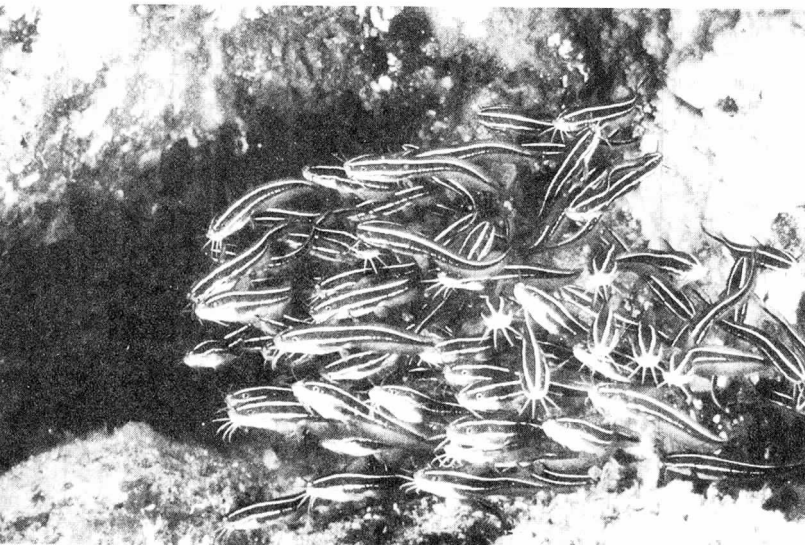
閑麗海上公園의 최남단 大並台島의 갈매기, 물이 맑고 魚種이 풍부해 갈매기 등 各種 바다새의 낙원을 이룬다.



彌勒岩 (미륵바위)

▲지곳이 눈감고 명상에 잠긴 듯한 얼굴에 합장한 미륵과 같다고 미륵바위라 부르는데 지방주민들이 옛부터 소원을 빌었다 한다.

靑淨해역의 바다밑에 서식하는 쓸종개 (*Plotus anguillaris*) 무리, 지느러미의 가시에서 독을 뽑는 특징이 있다.



▲쫓대모양을 한 두개의 쫓대바위가 있었으나 사라호 颶風에 한개가 부러진후 사모관대를 쓴 신랑과 흡사하다며 신랑바위라고도 부른다.